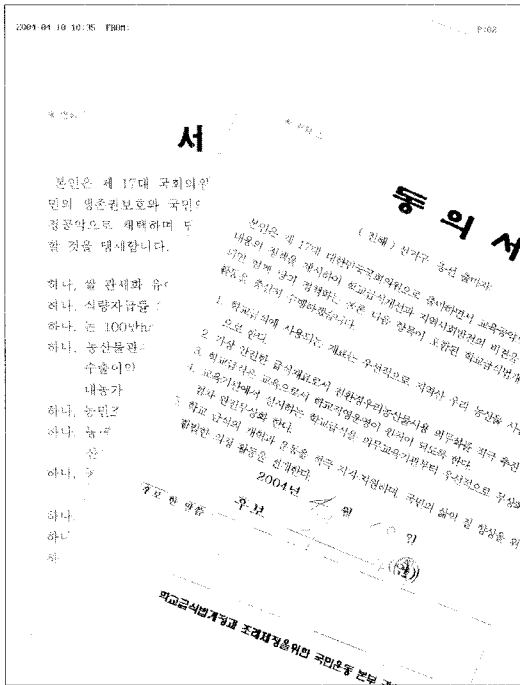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총선출마자에게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 다짐 받아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15대 농정공약발표'와 '정책선거부제'의 정당비판 활동, 후보자 동의서·서약서 확보 등 활발한 대응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서약서와 동의서 확보 활동을 진행해 향후 서명을 한 후보자 중 당선된 이들의 의정활동이 주목된다.

한농연은 지난 8일부터 선거전일인 15일까지 총선과 관련해 원내 진출의원의 농업정책 입안에 대해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급식 개선활동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을 받고자 17대 총선 출마자 서약서 및 동의서 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동의서와 서약서에 서명한 후보자는 강원 6명, 전북 1명, 경북 10명, 경남 4명으로 총 21명이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전남농민연대가 별도로 동의서와 서약서 확보활동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농연 시군회장교육 개최

올해 농정개혁의 초석으로 삼을 것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가 지난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3일간 수안보 농협연수원에서 '2004년 한농연 시·군회장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개조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첫날인 20일에는 강원·전북·경북·1특6광역시연합회가, 둘째날인 21일에는 경기·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도연합회가 각각 1박2일씩 교육을 실



시켰다.

이날 교육의 주제로는 ▲국내 및 국제 농업정세와 전망 ▲2004년도 한농연 주요 활동방향 ▲한농연이 나아갈 방향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예년의 교육과는 달리 농업정세와 한농연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 참석한 시·군회장들이 직접 분임토론과 조별 발표를 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올해 한농연 시·군회장 교육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폭설피해로 연기된바 있다.

한농연 서정의회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이번 시·군회장 교육은 올해 한농연이 농정개혁을 이끌어 나가

는데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하연합회 소식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시군회장 교육 개최

한농연전남도연합회(회장 이복흠)가 지난달 31일 전남도농업기술원 강당에서 2004년도 시군회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이복흠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칠레 FTA국회비준저지 때보다 더욱 단결된 우리들의 힘으로 반드시 쌀 개방을 막아내야 한다”며 “쌀개방 저지를 통해 농산업을 지키는 초석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희망농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전남도 유창중 농정국장의 ‘농정의 과제와 시책방향’ 특별강연 ▲김양식 (사)한국벤처농업포럼 회장의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 강연 ▲이정민 한농연보성군연합회 부회장의 쌀개방저지 농민투표 관련 강연이 진행됐다.

한편 전남도연합회는 이날 교육에 앞서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에 복讎농민에게 못자리 비닐보내기 성금으로 714만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쌀개방저지 및 식량주권 사수투쟁으로 쌀과 민족농업을 지켜 낼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쌀 개방저지 및 식량주권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례군연합회,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열어

한농연구례군연합회(회장 문길선)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농협구례군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초청해 총선후보자 초청 농정공약 대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영(66.한나라당), 정철기(67.민주당), 서영완(33.민노당)후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최대 농정현안인 쌀재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 열악한 농업구조 개선방안, 농가 부채 해소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 후보는 불참했다.

감귤 수출하려고 만든 기업이 되려 '오렌지 수입 웬말'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공기업형태로 설립된 제주교역이 오렌지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교역이 수입한 오렌지의 수입물량은 지난해 53톤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501톤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지탄을 받고 있다.

제주교역 관계자는 "농수산물을 수입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아니라도 어차피 수입될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

제주교역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문시병) 등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러한 제주교역이 과연 제주도와 시·군, 농수축협이 출자한 명실상부한 수출기관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제주교역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농수축협이 사건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오렌지수입에 대한 진상과 제주도민에게 공개 사죄, 수입에 따른 이익금을 감귤농가 환원 등을 요구했다.

문시병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앞으로 수입 과일여파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과일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농민연대 13개 농정과제 제시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정재돈)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총선에 대응해 정치권의 탄핵공방, 총선정쟁을 규탄하면서 농촌을 살릴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농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일에 정식으로 발효된 한·칠레 FTA 대해 “한·칠레 FTA는 더 많은 FTA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이후 체결될 FTA에서는 주요 농산물을 반드시 FTA 대상에서 제외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17대 총선에서 식량자급을 목표와 통일대비 농지보전대책, 농업협동조합의 농민본위 개혁, 농업통상 협상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13개 농정과제를 발표했다.

제천·단양 농민단체협의회 총선후보 초청 토론회

제천·단양 농민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제천시문화회관에서 농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대 총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송광호, 민주당 조두형, 열린우리당 서재관, 자민련 최만선, 녹색사민당 김대한, 무소속 권희경 후보 등 6명이 전원 참석해 후보자별로 농정공약 발표와 쌀재협상 문제, 농업·농촌종합대책, FTA후속대책, 지역농업발전 대책 등 패널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에는 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박사의 사회와 최영락 전 도의원, 조순호 전 한농연충북도연합회 감사, 양상환 제천시농민단체협의회장, 김명옥 여성농업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농 복讎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운동

지난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북한 고성군 온정리 마을에 있는 금강산 샘플공장에서 남북 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못자리용 비닐박막 인도인수식’을 가

졌다.

이날 전달된 못자리용 비닐은 130t, 1억500만원 상당으로 운동본부가 지난 1월부터 광주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여 모아진 성금으로 광주원협 비닐공장에서 못자리용 비닐을 제작했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인사말에서 “육로를 통해 전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6.15 시대에 즈음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북의 식량난을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기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측 김명철 단장은 “비닐박막은 단순히 영농물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북과 남이 하나되어 민족농업을 실현하는 의미가 담겨있고, 남측의 농민들이 통일염원을 담은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남측 농민들과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7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는 광주.전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농민단체 회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겨레 하나되는 통일 비닐 보내기’ 행사가 열렸다.

전농, 창립 14주년 기념식 개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이 지난 23일 오후2시, 동대문 구민회관 1층 대강당에서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문경식 의장은 기념사에서 ‘창립 14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계승해 정당과 사회단체를 포함한 범 농업계가 결집하여 향후 쌀개방 반대 국민전선을 구축하자’고 하고, ‘올 쌀투쟁의 전략적 요구인 쌀개방반대 식량자금을 목표치 법제화를 위한 식량주권선언운동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전농회원을 비롯한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행사에 이어 오후3시경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면회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식량주권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쌀개방반대 의지를 다졌다.

식량주권선언문은 ▲우리의 식량주권 선언은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식량주권을 부정하는 외국의 쌀수입 개방 압력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 정부는 농업농촌 기본법에 품목별, 연차별 식량자금을 목표치를 명시하여 근본적인 농업회생정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도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전세계 8억여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하여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 자국의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식량주권이 우선함을 세계 만국에 선언한다는 3대 핵심내용을 담았다.